

Modern Joseon's Accommodation of Western Music, Seen from Activity of Japanese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s

KIM, Jie soen*

This study, building on the general belief that western music was accommodated through changga (song based on western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the modern Joseon, aims to reveal activity of Japanese teachers in schools who sought to develop and improve changga and music education, and to show how western music was introduced to Joseon through their activity.

Six curriculum revisions has done between 1906 in which Joseon started modern education and 1945. At beginning, music education made much account of Changga education, later on how to use musical instruments, and music theory were introduced. Especially with Korca-Japan Annexation in 1910 as a start, this process was accelerated. Changga education in Japanese style was directory introduced to music education in Joseon. Changga which is symbol of Japanese style western music played important role to generalize Japanese style western music in Joseon.

However, since there was no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develop music school teachers, most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school teachers were Japanese at the time. Japanese teachers received good treatment as foreign part-time teachers; with the status of an official, they could work in favorable conditions with a normal salary and other benefits including bonuses.

* Tokyo University, Japan

Of Japanese music teachers who worked in the country, this study particularly examined teachers in schools who exerted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popularization of music. Gyeongseong Education School published “Study on Joseon’s Education(朝鮮の教育研究)” and “Elementary Changga(初等唱歌)”, helping to advance music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guidelines and new teaching methods reflecting the educational situation at the time. Moreover, “New Music Essentials(新制音樂要義)” was published by teachers in schools engaged in music education, and aimed to provide music books appropriate to Joseon’s situations, based o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foster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se activities of Japanese music teachers who were fully aware of the problems of changga music education then focused on practical solutions for the problems appropriate to the country’s situation. This example was not brought to much attention in the study of Joseon’s adaptation of western music in modern Joseon. However, the Japanese music teacher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onduit of western music and arguably had great influence on Joseon’s music education.

Through this, the study identified activity of Japanese teachers with a contributory role in line with the educa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General, which lead to viewing the process of people’s music learning from wider perspectives. In the aspect of the country’s accommodation of western music via Japan, educational activity of Japanese teachers could be seen as a certain phase of Joseon’s accommodation of western music under the exceptional situation of a colony, and thus, as one of the music cultures formed with combination of ideology at the time. In conclusion, changga and music education, symbolic of Japanized music cultures, were the demanded music culture the time, and Japanese teachers carried out their music activity faithfully, contributing to Joseon’s establishment of western music culture.

일본인 중등음악교원의 활동으로 본 근대조선의 서양음악 수용*

김지선**

〈자 례〉

1. 머리말
2. 근대조선의 학부령과 조선교육령에 의한 장기음악교육정책
3. 일본인 중등음악교원과 그들의 활동
4. 맺는말

1. 머리말

본 연구의 과제는 근대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에 있어 일본인 음악교원의 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고찰을 하는 것에 있다.

근대조선의 음악계에 있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서양음악의 도입일 것이다. 조선에서의 서양음악의 수용무트는 크게 3가지로, 선교사로 인해 들어온 찬송가, 근대교육의 시작과 함께 학교교육의 교과목으로써 채택된 창가, 음악교육, 그리고

* 도쿄대학 대학원

** 본 발표에서는 대한제국 성립인 1897년 이후부터 일본의 식민지기간(1910~1945)까지를 「근대조선, (1897~1945)」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국호를 1897년 9월까지의 '조선'으로 표기하고, 1897년 10월부터 1910년 8월 22일까지는 '대한제국'으로 표기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1910년 8월 23일부터 1945년 8월까지의 '식민지 조선'으로 표기 하겠다.

구한국정부에 의해 신설된 음악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서양음악 보급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공교육으로써 수용된 창가교육, 조선유일의 전문 음악교육기간이었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생들의 활동, 그리고 일본 등 구비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엘리트 음악가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파 방법으로는 인적전달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만들어진 축음기(레코드)와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서양음악은 조선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근대 조선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라는 일그러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의 근대는 지배국인 일본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은 지대했다. 모든 법과 행정 등이 당시 중추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에서 총괄하였고, 음악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총독부의 관하에 존속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은 식민지 이후 일본인들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하여 1925년 당시 경성의 총인구의 약 3분의 1이 일본인이 차지 할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이주하여,¹⁾ 그들만의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식민지 조선이라는 장소와 시대는 일본과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가 얽힌 사회공간이 되었다.²⁾

식민지 조선의 음악은 식민지 당시의 이데올로기로 위여 형성된 문화로, 서양음악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교육 분야에서는 창가가 당시만의 음악형식으로 끼어 맞춰졌고, 전시체제 속에서는 정치적 도구로 국민음악이라고 하는 전시체제를 향한 음악이 정당한 음악으로써 당시의 음악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행정적, 사회적인 역사 속에서 재조선 일본인들의 음악활동을 통

1)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5), 24-25쪽.

2) 근년, 재조선 일본인의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어 당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재조선 일본인들의 이주와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로는 木村建二(1989), 高崎宗司(2002), 박찬승(2002), 어박동(2002), 김백영(2005), 권숙인(2006, 2008) 등이 있다. 木村는 1876년부터 1910년 까지 일본인이 조선에 진출한 사회적 배경과 재조선일본인들의 커뮤니티였던 민단과 상업회의소의 조직 등에 대해 고찰하였고, 高崎는 1876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에 대한 개괄연구를 하였다. 박찬승은 1880년대부터 1903년까지의 시운의 일본인 거주민의 증가배경과 커뮤니티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고, 어박동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이주어촌에 관한 개관을 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도시생활상과 주택사상 등에 관한 연구로, 손경복(1996) 등이 있다.

해 한국근대음악의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연구가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³⁾ 이러한 연구는 35년간 일본의 조선통치 속 서양음악의 수용과 정착에 있어 일본인들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음악활동을 한 일본인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대강 살펴보면, 장기간 체류와 단기간 체류에서 그 활동 경향이 크게 달라진다. 장기간 체류에서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체류로 그야말로 조선에 이주해 하러 조선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생활한 일본인들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음악 전문교육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중등음악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여, 당시 체제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활동은 조선이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일본거주민들의 자녀 교육과 대한제국 정부의 초방에 의해 교편을 잡기 시작하였다.⁴⁾ 일본인들의 음악활동은 식민통치 기간 동안 크게 세시기(식민통치초기, 1919년 이후 문화통치, 1938년 이후 전시체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행정상황을 반영한 작은 음악회개최나 음악단체 활동도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일본인의 단기간 체류 음악활동으로는 주로 클래식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여 재조선일본인과 조선인의 지식층과 엘리트 학생층을 중심으로 향유했던 교양의 하나로써 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시기별, 영역별로 일본인들의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3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의 음악활동은 좀 더 세밀하고 세분화해서 고찰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악활동은 식민지 조선의 서양음악 전 분야에 걸쳐 지배자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3)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들의 서양음악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김지선(2010, 2011), 이경분(2011) 등이 있다. 김지선(2010)에서는 전문 음악교육을 받은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전체적인 음악활동경향에 대해 파악하였고, 김지선(2011)은 교육감지를 통해 일본인 교원들의 장가,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경분(2011)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의 존재와 영향을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4) 대한제국시기에 초빙된 음악교원으로는 小出雷吉로 그에 관한 연구로 朴成泰(1999)가 있다. 재조선 일본인의 음악활동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장기간 체류 일본인들이 교원으로써 활동 했던 것에 대해 밝힌 논문으로는 김지선(2010, 2011a)이 있다.

서양음악 수용, 정착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선 일본인의 음악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인들의 음악활동 중 장기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중등음악교원활동을 한 일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범학교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출판된 창가집과 서적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당시의 창가,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일본인 음악교원들의 활동이 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조선이 창가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대한제국가의 학부령부터 한일병합이후 조선총독부의 조선교육령의 음악교육정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당시의 창가, 음악교육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범학교 음악교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이 당시 조선의 음악교육의 습득전이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은 조선의 음악교육을 어떻게 인식, 개선해 나아갔는지 살펴본다.

2. 근대조선의 학부령과 조선교육령에 의한 창가음악교육정책

본 장에서는 조선의 창가음악교육의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당시의 음악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선이 근대식 교육을 시작한 1906년부터 1945년까지 총 6번에 걸쳐 교육개정이 크게 이루어졌다. 대한제국시절에는 2번의 교육개정이 이루어졌고, 식민지 조선시대에서는 4번의 교육개정이 이루어졌다.⁵⁾ 6번의 교육령에 의해 시행된 조선의 근대교육은 창가·음악교육에서도 반영되었다.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에서는 창가교육을, 중등교육에서는 음악교육을 말하는데 국민학교령 시기에는 예능

5) 제1차 학부령: 1906. 9. 1~1909. 8. 31, 제2차 학부령: 1909. 9. 1~1911. 10. 31.

6) 제1차 조선교육령: 1911. 11. 1~1922. 3. 31, 제2차 조선교육령: 1922. 4. 1~1938. 3. 31, 제3차 조선교육령: 1938. 4. 1~1941. 3. 31, 초등학교령: 1911. 4. 1~1945. 8. 15.

과음악으로 초중등 관계없이 음악교육을 받아왔다. 창가교육에서는 주로 노래를 하는 반면 음악교육에서는 노래와 함께 악기사용법, 음악이론 등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조선에서 근대교육이 막 시작 된 제1, 2차 학부령 시기의 교과목에 보통학교에서는 「창가」를, 고등학교·고등여학교·사범학교에서는 「음악」이 지정 되어 있었으나 음악은 결하여도 되는 과목이었다.⁷⁾ 당시에는 창가·음악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부족과 음악교재, 악기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실제 음악교수를 이행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⁸⁾ 이후 1910년 조선은 일본의 병합으로 인해 조선총독부에 의한 교육정책이 실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창가·음악교육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1, 2차 조선교육령의 창가요지는 평이한 창가를 노래함으로써 미감을 기르고 덕성을 함양 하는 것에 있었다.⁹⁾ 또한, 음악요지는 음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얻고 미감을 길러 덕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노래는 리듬과 선율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택하여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창작까지 이어지는 교

7) 第四條 高等學校의 本科學科日 修身,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 化學, 法則, 經濟, 圖書, 音樂. 體操로항외 法 法制, 經濟 及 音樂은 咸亨도 得亨이라. 「官報」(舊韓國, 1906년 9월 3일, 第2548號), 9쪽.

8) 「京城新聞」1909년 4월 27일자근 보면 관립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풍금을 사용하는 것을 본 신문에서 이전 기사에 내보내었는데 대구 토요일 오후에는 관립보통학교생도풍 조대하여 체육시간에 풍금을 사용하는 것을 특별 참관하게 하여 그제 포용인 오후에는 관립보통학교 보습과 12년급 생도 80여명을 초대하여 관립고등학교 기복실과 실험실, 동교학원의 제조 등을 관람시켰다고 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1909년 시경에는 당시 진귀했던 풍금이 아직 학교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신문 1909년 9월 16일자를 보면 관립고등학교에서는 배주 1시간 창가와 교수를 계획 하였는데 교사가 있는 관계로 사범학교 일본인 창가교사 小出씨에게 겸업교수 할 수 있도록 사범학교 교장에게 청원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로써 당시의 창가교수는 악기와 담당교원부족으로 실제교수는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제1차 조선교육령의 보통학교 창가교수요지의 자세한 내용은 文部省內教育史編纂會(第1卷, 1939) 77쪽을, 남자고등보통학교 창가교수요지는 같은 책 150쪽을, 여자고등보통학교 음악교수요지는 같은 책 233쪽을 참조. 이 시기의 사범학교는 폐지되어 그 대신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수업연한은 1년으로 음악교과목이 주 3시간 배치되어(임시교원양성소는 주2시간) 단음창가, 악기사용법, 복음창가의 교수가 이루어졌다. 제 2차 조선교육령의 시기는 수업연한이 일본과 동일하게 되어 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창가교수요지는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식학교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보통학교 창가교수요지의 자세한 내용은 文部省內教育史編纂會(第十卷, 1939) 655쪽을, 고등보통학교의 창가교수요지는 같은 책 753쪽을,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창가교수요지는 같은 책 811쪽을, 사범학교 음악교수요지는 같은 책 932쪽을 참조.

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¹⁰⁾

제3차 조선교육령시기에는 전시체제로 개편됨으로 인해 창가·음악교육의 노래 가사에 황국신민다운 정조 함양을 추가하게 되었는데,¹¹⁾ 이 시기는 음악구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리듬, 박자, 음역, 조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였다.¹²⁾ 마지막으로 국민학교령시기에는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어 전교과목이 「국민과」, 「이수와」,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나뉘고,¹³⁾ 음악을 「예능과」에 포함시켜 「예능과음악」으로 하였다.¹⁴⁾ 예능과음악은 황국신민다운 정조를 순화하여 국민음악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¹⁵⁾ 가창법, 악기지도, 음악감상, 음악이론, 음악사, 창작훈련, 의식창가 지도 등을 통하여 타 교과와의 관계를 연계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창작훈련에 있어서 「예민한 청각교육(銳敏なる聴覺の教育)」이 요구되어, 「산업 및 국방」에 이용 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결합으로서 전쟁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음악에까지 확대 하게 되었다. 예능과음악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국방에 있어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비행기와 잠수함등의 동정을 정확하게 알게 하였고, 산업에 있어서 불길문명의 진보가 발전되어 간에 따라 기계소리의 이행을 감지해 위협예망에도 도움이 되는 훈련이 요구되었다.¹⁶⁾ 또한, 기존의 「도래미파술라시」음명을 일본식 음명표기인 「하니호헤도이로」로 바꾸었다.

당시의 조선의 초등교육 위학률을 보면 1912년 현재 만 명당 28.5명으로 2.1%에 지나지 않은 것이, 이 후 그 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42년에는 만 명당 697.2명으로 47.7%까지 증가하였다.¹⁷⁾ 이러한 위학률의 증가는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

10) 朝鮮總督府(1912), 78-79쪽.

11) 소학교 창가교수요지의 자세한 내용은 朝鮮總督府學務課(1938) 31쪽을, 중학교 음악교수요지는 같은 책 53쪽을, 고등어학교의 음악교수요지는 같은 책 66쪽을, 사범학교 음악교수요지는 같은 책 84쪽을 참조.

12) 이와 관련하여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吉田正男)가 발간한 「皇國臣民教育の原理と實踐」(1938), 251-259쪽을 참조.

13) 중학교에서는 전과목이 국민과, 이수와, 체련과, 예능과, 산업과, 외국어과로 통합되었고, 사범학교에서는 국민과, 교육과, 이수와, 직업과, 가정과, 체련과, 예능과, 외국어과로 통합되었다.

14)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43), 145쪽.

15) 국민학교 예능과의 목표는 八東周吉(1941), 246쪽과 399쪽을, 음악표제내용은 같은 책 257쪽을 참조. 중학교 예능과음악의 교수방침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編(1943), 50쪽을, 사범학교 예능과 요지는 朝鮮總督府學務局編(1944), 51쪽을 참조.

16) 和歌山県岡部中学校附屬國民學校編(1941), 7쪽.

책에 의해 일본이 수용한 창가와 서양음악이 일본이 세운 근대식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창가, 음악교육을 체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서양음악이 조선에 보급,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학부령,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한 각 시기별 창가, 음악교육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창가, 음악교육의 실태와 그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본인 교원들과 그 활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일본인 교원의 활동이 근대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한다.

3. 일본인 중등음악교원과 그들의 활동

본 장에서는 중등교육기관 중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일본인 음악교원의 실체를 알아보고, 당시의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일본인 교원들은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창가, 음악교육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당시 사범학교의 음악교원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범학교 인람(一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창가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¹⁷⁾가 발간한 교육잡지 『조선의 교육연구(朝鮮의教育研究)』¹⁸⁾ 중 창가, 음악교육과 관련된 기사와, 경성사범학교음악교육연구회에서 편찬한 『초등창가(初等唱歌)』(해설서포함, 1935~1939), 경성사범학교 교육였던 이가라시(五十嵐梯三郎), 요시자와(吉澤實)와 경성여자사범학

17) 조선인거 일본인의 자세한 취학률에 관해서는 오성철(2000), 125쪽을 참조.

18) 조선초등교육연구회는 경성사범학교(1921년 설립) 및 그 부속학교의 교직원들이 화관이 되어 조직되었다. 조선초등교육연구회의 목적은 경성사범학교의 교육학 지식보급과 연구 활성화에 있었다.

19) 『조선의 교육연구(朝鮮의教育研究)』(1928~1941)은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발간한 잡지로, 교육학의 지식과 교과교육법을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것에 힘썼다. 『조선의 교육연구(朝鮮의教育研究)』는 1928년 창간되어 1929년 4월호부터 월간이 되어 1941년 6월까지 전155호가 발간되었다. 이후 1941년에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국민교육연구회로 개칭되어, 그와 함께 『조선의 교육연구(朝鮮의教育研究)』는 『국민교육(國民教育)』으로 개칭되어, 전6호까지 발간되었다(『國民教育』 1941년 1월호 참조). 발간부수는 월간으로써 발간된 1929년 4월호가 2권부 발간되어 같은 해 9월에는 3권부를 넘었다. 그 내용은 논설, 연구, 교제해설, 지도의 실제 등이었다(『朝鮮의教育研究』(1930년 2월), 134~135쪽).

교 교유였던 안도(安藤芳光)에 의해 편찬된 『신제음악요의(新制音樂要義)』(1937)의 편찬취지와 그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의 실태와 일본인 음악교원들의 창가, 음악교육과 관련한 활동이 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한다.

1) 사범학교 내 일본인 음악교원

일본에는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고등사범학교가 존재 했던 것에 반해 식민지 조선에는 고등사범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중등교원 대부분은 일본인 교원으로 충당하게 되는 불평등을 겪어야 했다. 당시 조선에는 「중등교원위탁생제도」와 「사립학교유실학교원지정제도」, 「농업교원양성제도」로 인해 중등교원 일부를 양성할 수 있었지만,²⁰⁾ 음악과 관련해서는 이화여자전문학교음악과 졸업생이 사립 고등보통여학교 음악교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 관공립 중등음악교원 대부분은 일본인 교원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관공립중등교육기관에서 일본인 교원이 음악을 담당하였는데, 중등교육기관 중 사범학교의 음악교육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같은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고등보통학교(중학교), 고등보통여학교(고등여학교)보다 컸다. 왜냐하면 사범학교는 초등교원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범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후에 초등교원으로서 창가·음악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 학생들이 사범학교에서 받은 음악교육은 초등음악교육에 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먼저 당시 사범학교(부속학교 포함)에는 어떠한 음악교원이 존재 하였는가에 대해서 당시 사범학교와 관련해 입수 가능한 대표적인 원전자료인 『京畿公立師範學校

20) 중등교원위탁생제도는 일본 내 고등사범학교와 보통학교교원양성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위탁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조선내의 중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조선 내 기관에서는 수인고등농림학교부칙십일보습학교교원양성소, 경성고등공립학교부칙이과교원양성소, 경성제국대학부속이과교원양성소, 경성제국대학문과·이과 졸업생들이 중등교원이 될 수 있었다.

一覽創立第二年」(1923), 「京城師範學校總覽」(1929), 「官立京城師範學校一覽」(1933)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이데(小出雷吉), 이시가와(石川義一), 이가라시(五十嵐柳三郎), 오오바(大場勇之助), 요시자와(吉澤寅), 안도(安藤芳亮), 아와지마(岩島茂枝), 나가오(長尾清), 사토(佐藤教昌)등이 음악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고이데, 이가라시, 오오바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면, 고이데(1867~1947)²¹⁾는 효고현(兵庫縣)출신으로 도쿄음악학교 전수부를 졸업 한 후 도토리현(鳥取縣)심상사범학교, 도쿄부(東京府) 심상사범학교 교원을 거쳐 1907년 대한제국정부의 호빙으로 한성사범학교 음악교원으로 오게 되었다. 그 후 고이데는 학부에서 편찬한 창가집인 「普通教育唱歌集第一輯」(1910)에도 관여를 하였다.²²⁾

이가라시(1893~1940)²³⁾는 야마가타현(山形縣) 출신으로 야마가타현사범학교를 졸업 한 후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음악과 교원면허장을 취득, 야마가타현 사범학교 교유로 활동하다가 1924년 조선을 건너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경성사범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에는 쌍엽음악원을 설립하여 이왕직아악부, 창덕여학교, 경기중학교, 경북중학교 음악 촉탁강사로도 활동하였다.

오오바(1886-미상)²⁴⁾는 야마가타현 출신으로 육군군악대를 거쳐 도쿄음악학교 본과(바이올린전공), 연구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도쿄카즈야(東京教矢)심상소학교, 히로시마(広島)여학교, 오사카나이이치에이선(大阪第一豊進)고등소학교교원을 거쳐 1921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공립고등여학교 음악교유로 활동하였다. 그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았다.

당시 일본에서 중등음악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① 도쿄음악학교사범과·본과졸업, ② 중등음악교원점정시험합격, ③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졸업」 등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 당시 전문음악교육을 통해 많은 음악교원과 많은 전문음악가를 배출한

21) 「東京音樂學校一覽 從明治四十年至明治四十一年」-「東京音樂學校一覽 從大正八年至九年」의 졸업생 정보의 취입자원지에 기입된 부분을 정리하였다.

22) 朴成泰(1999), 20~22쪽.

23) 이가라시의 이력에 대해서는 藤井浩基(2008), 104쪽에 의거함.

24) 오오바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관한 이력정보는 有馬純吉(1931), 74쪽에 의거하고, 조선에서의 활동에 관한 이력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名錄」(1922-1938)과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1937), 97쪽에 의거하였다.

도쿄음악학교 사범과와 본과는 음악교원 양성기관으로써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기의 일본인 음악교원 중 도쿄음악학교 출신자로 확인된 자로는 고이데, 오오바, 요시자와인데, 도쿄음악학교 출신자들이 조선에서 중등음악교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도쿄음악학교의 영향력이 조선에까지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조선에서의 활동은 그들 자신에게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사회적 대우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²⁵⁾ 일본인 교원은 한일병합 이전부터 외국인특약교원으로써 다양한 대우를 보장 받았다.²⁶⁾ 특히, 한일병합 이후의 대우를 보면 이전의 권공립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관리(官吏)가 아닌 「관리대우」를 받았는데,²⁷⁾ 한일병합 이후 순수한 관리가 되었다.²⁸⁾ 초등교원 훈도(訓導)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중등교원 교수(敎諭)는 고등관(高等官)인 주임(奏任) 또는 판임(判任)의 관리 직책을 받았다. 그리고 관리직책과 함께 본봉(本俸)이외에 재근가봉(在勤加俸) 특전과 은급(恩給) 및 퇴은료과산년(退隱料過算年)의 특전 등 받을 수 있었다.²⁹⁾ 또한 숙사료(宿舎料)의 지급과 여비(旅費) 등 규정에 의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³⁰⁾ 이러한 일본인 교원들의 보장은 관료로서의 지위 획득과 일본보다 물가가 저렴했던 조

25)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교원에 관한 연구로는 笹葉龍雄(1999), 佐藤由美(2000), 임후남(2002), 朴永奎(2003), 山田寛人(2004), 本間千景(2005) 등을 참조.

26) 일본은 1904년 칙령 제195호와 칙령 제237호에 의해 외국정부에 조빙된 재직관리에 관한 법칙 조치가 마련되었다.

27) 일본의 법적 조치로 인해 구한국정부에 조빙된 일본인 교원은 관리 대우로서 귀국 후의 직업과 구한국에서 재직 한 기간도 교원으로 계속되어 재직된 것으로 보장 받았다. 그리고 구한국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도 일본국 관리의 대우가 보장 되었다. 1907년 12월 27일자 『皇城新聞』에 의령 제55호 「官等俸給令中改正件」이 게재되어(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인 교원이 구한국에 부임 할 때 이전에 받은 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증급(増給)한다고 하였다.

28) 1911년 10월 11일 칙령 제 256호에 의해 조선 공립보통학교관계가 정해져 제1조에 학교장, 훈도(판임), 부훈도(판임)을 둔다고 하여 조선의 공립 보통학교 교원은 관리대우가 아닌 관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 文部省內教育史編纂會(第十卷), 72쪽.

29) 재근가봉특전을 보면 1906년 「滿韓在勤文官加俸令」(칙령 제306호)와 1910년 「臺灣滿韓及樺太在勤文官加俸令」(칙령 제137호)에 의하면 고등관의 가봉은 본봉의 10분의 5 이내, 판임관의 가봉은 10분의 8 이내로 가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은급 및 퇴은료과산년특전은 조선에서 3년 이상 재직 한 자가 재직 1개월에 대해 반개월의 가산을 받는 것으로 1개월의 답료가 1.5배분이 되는 계산을 말한다.

30) 1918년 1월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宿舎料支給規程」에 의해 칙임관부터 판임관대우까지 그 지위에 의해 60원부터 18원까지 숙사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24호 「朝鮮總督府旅費規則」에 의해 출장중 조선내 여행에 대한 여비도 지급되었다. : 渡部洋・河部洋(1989), 第44卷)의 「法令」, 25-28쪽.

선에서의 받는 다양한 수당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 교원활동에 있어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 되었다고도 보여 진다.

이상으로 사범학교의 교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있는데, 다음으로 사범학교 음악교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의 실태와 일본인 교원의 활동으로 본 창가, 음악교육의 개선 모색에 대해 살펴본다.

2) 식민지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의 실태와 일본인 교원의 개선모색

식민지 조선의 창가, 음악교육은 어떠한 위치에 처해졌는지 그 실태에 대해 『조선의 교육연구』(조선초등교육연구회편)와 『초등창가』(경성사범학교음악연구회편), 『신제음악요의』(五十嵐三郎, 吉澤實, 安藤秀亮)의 편찬취지와 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³¹⁾

조선의 사범학교중 경성사범학교에서의 교육개선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경성사범학교에서는 초등교육연구회를 두어 초등 교원에게 교과교수법을 보급하기 위한 잡지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를 발간하여 체계적인 교육발전에 힘썼다. 창가, 음악과 관련해서는 초등교육연구회내 요사자와가 이끈 음악교육연구부에서 창가·음악교육의 실제교육지도안과 새로운 교수법등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본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음악교육의 질적인 발전에도 힘써왔다.³²⁾

그 중 『조선의 교육연구』에 게재 된 안도의 「음악교육의 근본문제와 그 실제」³³⁾의 글을 통해 당시 창가, 음악교육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당시 교원들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가르치기 힘들다고 여겼던 악보교수에 관한 글로, 안도는 악보교수 이질에 귀를 훈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문제해결을 제시했다. 그 방법으로 ① 계명모창(模唱), ②

31) 『조선의 교육연구』와 『초등창가』에 대해서는 김지선(2011)을 참조.

32)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에 실린 창가·음악교육관련 기사는 총 118편으로 그 내용은 창가지도안, 창가지도실제, 창가과제도의 실행면, 창가교재해설, 음악교육의 기본연습 등 실제교수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구성 되었다: 김지선(2011), 100-102쪽.

33) 安藤秀亮, 「音樂教育の根本問題と其の實察」, 『朝鮮の教育研究』(京城: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年9月號, 86-91쪽.

계명답창(答唱), ③ 계명시창(視唱), ④ 계명을 선율로 쓰기, 순으로 귀의 훈련을 충분히 교수 한 후에 악보교수를 해야 한다고 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안도는 당시 교사가 창가교육을 함에 있어서 난관으로 생각했던 악보교수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으로 제안을 하였는데, 30년대 당시의 창가교육은 식민지 조선에 창가, 음악교육이 보급된 이후 노래를 부르는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였다. 1922년 4월부터 1938년 3월까지의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창가, 음악교육이 이루어 졌는데, 교육에 있어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본의 교육연한과 동일하게 되는 내선공학(內鮮共學) 정책을 실시 한 것이다.³⁴⁾ 이 시기는 전쟁 이전의 시기로 창가, 음악교육에 있어서 일본특유의 민족문화의 이해를 진재로 일본재래의 선율과 비들의 교육을 통해 일본음악의 건설을 계획하여, 음악과 사회성취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조(思潮)를 가지고 있었다.³⁵⁾ 특히 창가지도에 있어서는 음악적 직관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음악생활의 지도를 중요시하고 감상적(악곡의 변화, 특징), 창작적(가사제작, 음분량독), 종합적(타학과와의 연결), 전신적(신체적동작, 유희화), 지식적(악리의 이해)지도를 하도록 하고, 악곡과 가사의 유의적관계를 학습함으로써 리드미컬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레코드 감상과 독보(讀譜)연습, 악전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중시하였다.³⁶⁾ 이러한 창가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대두된 악전 중 악보교수의 난관은 당시의 창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초등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안도의 제안을 통해 조금은 해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안도는 음악은 인격을 도야하는 유일한 과목으로 보고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악보교수의 제안 이 외에도 창가교재해설, 교재선택론, 지도의 실제, 농촌음악교육의 생각 등에 대해 『조선의 교육연구』에 집필 게재함으로써 조선에 맞는 음악교육을 실천적으로 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34) 학교종류와 수업연한등 학제가 일본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대학교육과 사립교육의 실사가 되고 교육기관등의 내선공학이 인정 되었지만 여전히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일본인)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조선인)의 구별을 두어 차별교육을 하였다.

35) 徐在謙(1935), 125-126쪽.

36) 위의 글, 127-128쪽.

『조선의 교육연구』를 통해 창가, 음악교육의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해결방안이 모색 되어 가는 과정에서 『초등창가』와 『신제음악요의』의 편찬은 당시의 창가, 음악교육에 관여한 교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대변한 결과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두 결과물은 당시 사회는 급변하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창가, 음악교육은 변하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편찬한 창가집과 음악서인데, 사대에 맞는 창가교육, 일본과 다른 조선의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창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편찬한 것이 경성사범학교 음악교육연구회편찬의 『초등창가』이고,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며 초등교육을 깊어지게 될 사범학교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의해 사범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음악이론서 겸 음악교육법의 교재로써 당시 사범학교교육에 의해 편찬 된 것이 『신제음악요의』이다.

특히, 경성사범학교 음악교육연구회의 『초등창가』가 편찬되기 이전까지의 학교 공교육에서 쓰인 창가집은 일본의 문부성 창가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였다.³⁷⁾ 그러나 경성사범학교 음악교육연구회에서는 기존의 창가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가사와 작곡을, 조선의 정서를 포함한 풍경, 인물, 사실(史實) 등의 재료를 담은 〈김장훤(談物時)〉, 〈석굴암(石窟庵)〉, 〈옛 수도 부여(舊都扶余)〉, 〈이퇴계(李退溪)〉 등의 많은 곡들을 『초등창가』에 수록하였다.³⁸⁾ 그리고 조선인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참여로 그들의 한글가사 창가도 각 학년별로 분포되었다. 또한, 조선의 아아 선율을 채택한 〈자장가(子守唄)〉³⁹⁾와 같은 곡도 수록되었다. 이렇듯 조선의 기존 창가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해결책으로 조선의 정서를 담아 편

37) 예외적으로 조선총독부편, 『普通學校補充唱歌集』(京城: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1920)은 학생들에게 가사를 연상 공모하여 일본의 작곡가에게 곡을 붙인 곡이 중심으로 되어있어 그만큼 조선문 소재로 한 〈白頭山〉, 〈百濟〉, 〈釜山港〉 등의 곡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

38) 요시자와는 『초등창가』의 편찬위지에 대해서는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 1934년 3월호(99-101쪽)에 밝혔다. 『초등창가』에 수록된 조선의 자연, 향토풍, 전통놀이, 역사적인 위인적 사적의 내용이 담긴 전체 곡에 대해서는 김지선(2011), 110쪽을 참조.

39) G단조, 3/4박자로 3부 형식의 32마디로 구성되었다. 초등창가 해설집에는 조선 고래(古來)의 아아적 선율을 다분히 사용하였다고 설명되어있는데(『初等唱歌解説書第六學年用』, 90-91쪽), 이 곡의 처음 8소절은 당시 조선인 음악가로 활약했던 흥남파의 〈봉선화〉의 멜로디와 일치한다. 그러나 흥남파의 〈봉선화〉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탄제〉의 멜로디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교란이 필요하다.

찬찬 「초등창가」는 당시 경성사범학교 음악교유인 요시자와⁴⁰⁾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신제음악요의」의 편찬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본서는 경성사범학교 교유였던 이가라시(五十嵐徳三郎)와 요시자와(吉澤實),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유였던 안도(安藤芳亮)에 의해 1937년에 편찬되었는데, 이들 저자들은 본서 서문에 음악문화의 발전은 사범교육에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하게 될 사범교육에 맞는 음악이론서와 교과서 겸 참고서로서 출판한다고 그 취지를 기술하였다. 초등교육을 깊어지게 될 교원양성에 꼭 필요한 것은 이단과 그 이론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법인데, 「신제음악요의」는 그 교육양성의 중요성에 각인하여 그 음악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면과 교육방법적 면을 해결하기 위해 출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음악관련 이론서는 이미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가 그대로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총독부에 인가받아 사용되고 있었다.⁴¹⁾ 이런 상황에서 「신제음악요의」의 출판은 장기간 조선에서 음악교육을 남당해 왔던 이가라시, 요시자와, 안도에 의해 출판된 것으로, 조선의 음악교육현장은 가장 잘 알고 있던 이들은 당시의 음악교육정책에 맞춰서 음악이론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⁴²⁾

「신제음악요의」의 구성을 보면, 크게 3권으로 나뉘어져, 제1편에는 악전을, 제2편에는 음악사와 음악상식을, 제3편에는 음악교수원론(음악교육의 근거, 음악교육의 목적, 음악교육의 방법, 교재의 연구, 지도법의 연구, 교과과서와의 관계, 교수자의 수양)으로 되어, 음악이론서와 음악교육교수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법에 관해 그 내용을 보면, 창가를 음악의 인부로 보고, 창가는 아동의 음악적 미감을 도야 하는데에 분중분하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창가교육을 통하여 음악교육

40) 1926 『東京音樂學教一覽』(1926)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30~1943)에 의하면, 요시자와는 1926년 도쿄음악학교 사범과(감독)을 졸업 후, 1930년부터 경성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41) 1925년 4월부터 1927년 7월까지 조선총독부에서 인가 받은 음악관련 도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1927), 127~129쪽을, 1931년 10월부터 1932년 9월까지 인가 받은 음악관련 도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1932), 40쪽을, 1932년 10월부터 1933년 9월까지 인가 받은 음악관련 도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1933), 37~38쪽을 참조.

42) 이들은 실제로 「조선의 문교(朝鮮の文教)」와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에 당시 조선의 음악교육의 징계와 문제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한 글을 집필하였다. 이들의 관련 기사 정보에 대해서는 김지선(2011)자료를 참조.

에까지 이어지도록 발전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결국 창가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노래하기, 듣기, 연주하기, 창작하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특히 노래하기와 듣기는 음악생활의 기본구성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하였는데,⁴³⁾ 이들의 생각은 당시의 창가, 음악교육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저자들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악기명칭 등 기본적인 음악적 상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악기명칭으로 일본인은 고토, 샤푸하치, 사미센 등을, 조선인은 가야금, 거문고, 양금, 단소, 해금 등을 나열하며, 아동의 수준에 맞고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것으로 음악과의 관계를 관찰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음악상식을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일본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들이 접해 있는 상황에 맞춰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한 것에 대해서는 인상적이지만, 교육상 기본요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일본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미가요(君が代)>를 비롯한 독일 창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조선총독부가 인가한 모든 창가집에 포함되어 있는 의식창가와 독일창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모양이 되었다.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초등교육을 깊어지게 된 사범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전제로 편찬한 『신제음악요의』의 저자들은 본서를 통하여 조선의 음악교육에 있어 서양음악이 이론의 정통(正統)이라는 것을, 그리고 창가교육의 정당성을 교육방법을 통하여 인식시켰다. 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에 있어서 창가교육을 통한 부트는 하나의 동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근대 교육의 상징인 창가교육을 도입하여, 당시의 교육제도에 맞게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한 것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범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일본인 음악교원이었다. 일본인 음악교원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여는 힘들었지만, 교육 실행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창가교육을 정당화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었다.

특히, 조선의 교육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음악교육에 힘써온 이가라시, 요시자

43) 五十嵐徳三郎・吉澤寅・安藤芳光(1937), 80-81쪽.

44) 위의 책, 87쪽.

와, 안도와 같은 사범학교 교유는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결정된 창가교육을 조선인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과 교육방법은, 장래에 초등교원이 될 사범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제음악요의」교재를 통하여 모색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기존의 이론서는 이미 일본에서 출판 된 것을 그대로 조선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에 의한 음악이론서는 조선에서 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존재감을 보여 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5. 맺는말

본 연구는 근대 조선에서 서양음악이 창가, 음악교육을 통해 수용되었다는 통론 하에 당시 창가, 음악교육에 개선 발전을 모색 했던 사범학교 일본인 교원들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밝힘으로 그들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조선에 서양음악이 전이 되는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선이 근대식 교육을 시작한 이후 총 6번에 걸친 교육개정 속에서 주로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창가교육과 노래와 함께 악기사용법, 음악이론 등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근대식 교육에 도입되었다. 근대식 음악교육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책에 의해 일본이 수용한 창가와 서양음악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조선의 서양음악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조선에는 관공립음악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관공립음악교원 대부분은 일본인 교원이었다. 일본인 교원은 한일병합 이전부터 외국인속탁교원으로서 다양한 대우를 보장 받았는데 직분은 관리로, 봉급은 본봉 이외에도 가봉과 퇴근료과산년의 특전 등의 보장으로 인해 조선에서의 교원활동은 좋은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음악교원 중 음악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범학교 교원들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중 경성사범학교에서는 「조선의 교육연구」를 발간하고, 「초등창가」를 편찬함으로써 당시의 교육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실제 교육의 지도안과 새로운 교수법등의 개발과 같은 음악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음악교육에 종사한 사범학교 교원들에 의해 『신제음악요의』가 편찬되었는데, 이는 초등교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실정에 맞는 음악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 활동들은 일본인 음악교원들이 당시의 창가,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 조선에서 서양음악의 습득 전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별로 논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일본인의 활동으로 그들의 역할은 당시 음악교육을 통한 서양음악의 전달자로, 그들의 영향력은 조선의 음악교육에 있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당시의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 속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일본인 교원들의 활동을 확인함으로써 당시의 음악습득의 과정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일본을 경유해서 온 서양음악의 수용적 측면에서 일본인 교원의 교육활동은 식민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선의 서양음악 수용의 한 단면으로, 식민지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형성된 음악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화된 음악문화의 상징인 창가, 음악교육은 당시 요구되어진 음악문화로 일본인 교원들에 의해 그 음악활동이 충실히 실행되어, 조선의 서양음악문화를 구축하는데 인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 참고문헌

〈사료〉

「官報」(舊韓國)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학교일람〉

- 『京畿道公立師範學校一覽』, 1924년.
 『京城師範學校總覽』, 1929년.
 『官立京城師範學校一覽』, 1933년.
 『東京音樂學校一覽』, 1889-1941.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1937년.

〈산문 및 잡지〉

- 『國民教育』
 『文敎の朝鮮』
 『朝鮮の敎育研究』
 『京城新聞』

〈창간집 및 음악서권련〉

- 京城師範學校音樂敎育研究會編, 『初等唱歌第一學年』, 大阪: 日本唱歌出版社, 1935.
 _____, 『初等唱歌第二學年』, 大阪: 日本唱歌出版社, 1935.
 _____, 『初等唱歌第四學年』, 大阪: 日本唱歌出版社, 1935.
 _____, 『初等唱歌第五學年』, 大阪: 日本唱歌出版社, 1935.
 _____, 『初等唱歌解說書第一學年用』, 京城: 株式會社朝鮮地方行政學會, 1937.
 _____, 『初等唱歌解說書第三學年用』, 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9.
 _____, 『初等唱歌解說書第四學年用』, 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9.
 _____, 『初等唱歌解說書第五學年用』, 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9.
 _____, 『初等唱歌解說書第六學年用』, 京城: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9.
 五十嵐悅三郎·吉澤實·安藤芳亮, 『新制音樂叢書』, 京城: 朝鮮地方行政學會, 1937.

〈한국어문헌〉

- 呂博東, 『일제의 조선어언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서울: 보고사, 2002.
 岡原塚, 『韓國唱歌의 索引과 解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 1997.
 孫敏浩, 『日帝強占期都市社會相研究』, 서울: 一志社, 1996.
 오성철, 『식민지초등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2000.
 권숙인, 『도한(渡韓)의 권유-1900년대 초두 한국이민론 속의 한국과 일본-』, 『사회와 역사』 제63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185-214쪽, 2006.
 _____,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파식민 조선인과의 만남과 식민화식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80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109-139쪽, 2008.
 김백영, 『식민지 도시계획을 둘러싼 식민 권력의 균열과 갈등: 192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7호,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84-128쪽, 2005.

- 김지선, 「임재경집가 국내의 일본인 음악가들과 그 활동」, 『韓國音樂史學報』 第45集, 서울: 韓國音樂史學會, 261~291쪽, 2010.
- _____, 「집지가사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창가·음악교육의 실태 - 「문교의 조선」과 「조선의 교육연구」의 교원 에 의한 기사를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 第46集, 서울: 韓國音樂史學會, 97~130쪽, 2011.
- 박은경, 「學部編纂 『普通教育唱歌集』 연구」, 『천안외국어대학 논문집』 장길호, 천안: 천안외국어대학, 499~519쪽, 2001.
- 朴賢勝, 「서울의 일본인 거주지 형성과정: 1880년대-1900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2호, 서울: 한국사 회학회, 64~100쪽, 2002.
- 이경보, 「일제시기 서양음악문화와 일본인의 영향」, 『音樂論壇』 第25集, 서울: 漢陽大學敎育音樂研究所, 159~186쪽, 2011.
- 이병담·김해정,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일과와 실상-갑산창가의 체계와 내용은 중심으로-」, 『日語 日文學』 第34集, 釜山: 大韓日語日文學會, 231~251쪽, 2007.
- 임후남,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2.

(일본어문헌)

-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筑波書店, 2002.
- 古田正男, 『皇國臣民教育の原理と實踐』, 京城: 朝鮮公民教育會, 1938.
- 渡部學·阿部洋,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全69巻), 東京: 龍溪書舎, 1988.
- 松葉蓮哉, 『舊植民地教育と日本人教育』,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1999.
- 藤井浩基 藤井浩基, 「音樂にみる植民地期朝鮮と日本の關係史 - 1920-30年代の日本人による活動を中心 に -」, 大阪: 大阪芸術大學大学院博士論文, 2008.
- 木村健二, 『在朝日本人社會史』, 東京: 未來亭, 1989.
- 文部省内教育史編纂會, 『明治以降教育制度發達史』(第十巻), 東京: 教育資料調査會, 1939.
- 岡原保, 『韓國における西洋音樂の受容 - 朝鮮總督府の音樂教育政策と日本洋來の影響を中心にして -』, 東京: 東京芸術大學修士論文, 1995.
- 朴成泰, 「大韓帝國における愛國唱歌教育運動と學部の植民地音樂教育政策 - 小出雷吉による『普通編纂をめぐって』 -」, 『音樂教育學』 第29巻, 第2號, 東京: 日本音樂教育學會, 13~28쪽, 1999.
- 朴永至,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養成 - 師範學校生徒の出自と招聘教員を中心に」, 『アジア教育史研究』 第12號, 東京: アジア教育史學會, 38~55쪽, 2003.
- _____,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育養成に関する研究」, 福岡: 九州大學大学院博士 論文, 2006.
- 本間千尋, 「保護團, 朝鮮島の教員需要と供給」, 『人文學報』 第32巻,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45~176 쪽, 2006.
- 山本翠子, 「朝鮮植民地時代における學校唱歌教育 - 初等教育用唱歌集およびその所收唱歌の分析を中心にして -」, 東京: 東京芸術大學修士論文, 1994.
- 山田寛人,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獎勵政策 朝鮮語を學んだ日本人』, 東京: 不二出版, 2004.
- 徐在漸, 「唱歌科」, 『各科教育の動向』, 釜山: 三書出版社, 124~135쪽, 1935.

- 安藤芳亮, 「音樂教育の根本問題と其の實際」, 『朝鮮の教育研究』, 京城: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年 9月 號, 86-91쪽.
- 有馬純吉, 『朝鮮紳士録』, 京城: 朝鮮紳士録刊行會, 1931.
- 朝鮮總督府, 『教科用圖書一覽』(明治45年 1月 改訂第6版), 1912.
- _____, 『教科用圖書一覽』(體制4年 12月 改訂第9版), 1915.
- _____, 『本府編纂教科用圖書一覽』(1937年 7月 現在).
- _____, 『本府發行教科用圖書一覽』(1939年 5月 現在).
- 朝鮮總督府學務課, 『朝鮮における教育革新の全貌』,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8.
- 朝鮮總督府學務局, 『敎認可教科用圖書一覽』(1925年 4月-1927年 7月), 京城: 大和堂印刷所, 1927.
- _____, 『認可教科用圖書一覽』(1931年 10月-1932年 9月),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 _____, 『認可教科用圖書一覽』(1932年 10月-1933年 9月), 京城: 行政學會印刷所, 1933.
- 朝鮮總督府學務局總, 『師範學校教科教授及修練指導要目』, 京城: 行政學會印刷所, 1944.
- 朝鮮總督府學務局編, 『中學校教科教授及修練指導要目』, 京城: 行政學會印刷所, 1943.
- 佐藤由美, 『殖民地教育政策の研究【朝鮮・一九〇五—一九一〇】』, 東京: 蘭溪書舍, 2000.
- 八束周吉, 『朝鮮國民學校敎則の實踐』, 大阪: 日本出版社, 1941.
- 和歌山縣師範學校附屬國民學校編, 『國民學校教科經費實踐問題の研究 第十輯 芸能科音樂の實踐』, 和歌山: 和歌山縣教育會, 1941.